

‘전남형 작은학교’ 성과·방향 주목

전남교육청, 글로벌 미래교육 특색 교육과정 운영 방안 논의

전남교육청의 역점사업인 전남형 작은학교의 성과와 미래교육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형 작은학교 성과나눔 한마당’을 열고 2025학년도 특색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 180여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작은학교의 교육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교육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2025년 전남 작은학교 특색 프로그램 및 특성화 모델학교 공모사업 안내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사례 발표 ▲작은학교 아카데미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작은학교 교육대전환’ 주제의 특강에는 박남기 교수(광주교육대)가 작은학교의 교육혁신을 위한 방향과 실천 전략을 설명하며, 전남 작은학교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사례 발표는 해양 특성화 교육 ‘바다학교’를 운영한 목포서산초등학교와 목포도시재생지원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유달산과 다도해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오감만족 생태환경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 학교는 해마다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거론되



지난 13일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전남형 작은학교 성과나눔 한마당’에서 학령인구정책팀 이동수 사무관이 ‘2025년 전남 작은학교 특성화 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제공>

는 학교였지만, 올봄에만 전입 학생 8명이 찾아오며, 대표적인 특성화 모델학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선정된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는 목포서산초 외에도 화양초, 삼기초, 중동초, 별량초, 서산초, 덕진초, 나주봉황중, 간문초, 고흥대서중 등 10개다. 이들은 학생자사고, 영화학교, 요리학교, 국악예술감성학교 등 다양한 주제로 특색있는 교육활동을 펼쳐왔다.

이어 참여 교원들은 각 학교의 특성과 내년도 특색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모델학교 발표를 경쟁하

며 적용 방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향후 특성화 모델학교를 확대하고, 특색프로그램을 내실화해 전남형 작은학교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문태홍 전남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전남 작은학교는 학생들이 눈부신 성장을 이룰 알과 삶의 배움터다. 작은학교 특성화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작은학교가 글로벌 미래교육의 실천 장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 전문 기술 인재 육성

집중육성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광주 5개 대표 산업과 진로 연계

광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학부장 박창규)는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고 광주형 일자리, 광주 글로벌모터스와 함께 성장을 꿈꾸는 엔지니어 배출의 요람이다.

지난 2017년 설립된 IT자동차학과 및 기계금형공학부를 2024년부터 기계자동차공학부로 통합해 스마트 모빌리티와 기계-금형 분야를 아우르는 전문 기술 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학생 모두가 기계, 자동차공학 복수학위 취득이 가능한 기계자동차공학부는 비좁은 취업시장에서 폭넓은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다.

광주시가 2030년까지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5개 분야 중 9대 대표산업 가운데 인공지능(AI), 모빌리티, 메디 헬스케어, 광융합 가전, 스마트 뿌리산업 등 5개 대표산업과 전공이 연계돼 있어서다. 산업체 연구부문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최고의

교수진은 실무형 교육에 특화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 면접 사제동행’을 통해 입학에서 취업까지 체계적이며 책임감 있는 학부 문화도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밖에 기업의 대대급 경험치를 갖춘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는 최신식 실습실을 비롯해 캡스톤디자인, 동아리 활동, 현장견학, 전문가 초청 특강 등도 학생의 성장을 이끌고 꿈을 현실화하는 데 큰 몫을 담당한다.

박창규 학부장은 “광주대 기계자동차공학부는 4차산업혁명의 중심이 되는 미래 모빌리티 시장과 자동차, 건설, 조선, 플랜트, 항공기, 반도체, 로봇, 의공학 등 광범위한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계공학 분야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배움터”라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한국애견협회

애견산업발전·인재 양성 협약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는 최근 중앙도서관 세미나실에서 한국애견협회(회장 신귀철)와 애견 산업 발전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술 및 학생 지도, 교육 과정 개발·개편 시 상호 협력 등을 통해 애견산업 분야 우수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학생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반려견 전문가 강의, 졸업생 취업 질적 수준 제고 등을 통한 실무 인재 양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

동신대 송경용 대외협력부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학과 학생들을 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한층 강화할 계획”면서 “우리 대학이 반려동물학과 대학원 석사과정도 개설했는데, 앞으로 학문적 발전은 물론 한국애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애견 산업 발전에도 역할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애견협회 박경 부회장은 “대학원 석사 학위 과정까지 개설하며 반려동물학과를 집중 육성하고 있는 동신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체계적인 교육과 양 기관 협력을 통해 전문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애견산업이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가자”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교수법 발표대회 시상식...학생심사단과 발전방안 소통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학생들과 함께 학습 효과 만점의 교수법을 공유하며 교원들의 전문성을 키우는 등 교육 혁신 성과를 다양화하고 있다. 동강대 교수학습센터는 최근 본관 1층 총장실에서 ‘2024학년도 효과적인 교수법 발표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동강대는 혁신적인 교수법으로 학생 역량을 높이는 수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매년 교수법 발표대회를 열고 시상하고 있다.

동강대는 시상식에 앞서 지난달 21개 학과에서 추천한 교수법 가운데 본선 출품작 4개를 선정해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자들은 효과적인 강의를 위한 수업 설계와 방법 등을 각각 소개하고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이날 발표회에는 학생들이 교수법 심사단

으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학생 심사단들은 ‘교수들이 어떻게 강의를 준비하는지 설계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수업 이해도가 한층 빨랐다. 또 학습자 관점에서 강의 효과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피드백을 나눌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수법 발표대회 대상은 건축학과 이상희 교수(성인 학습자를 위한 플립러닝 활용 캡스톤디자인 수업 운영)가 수상했다. 또 최우수상은 간호학과 김진철 교수, 우수상은 의식조리제빵과 오명진 교수와 AI융합전기과 문정훈 교수가 각각 받았다.

이민숙 총장은 “올해는 AI를 활용한 혁신적인 교수방법이 많이 발표돼 앞으로 학생들의 실력 향상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호남대-日 구루메대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확대

운영 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 교수, 사업 절차·조건 등 논의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는 한국어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구루메대학교와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KF 글로벌 e-스쿨 한국어교육 사업’은 해외의 한국어교육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급증하는 한국어 강좌 수요에 대응하고자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국내-해외대학 연계 및 해외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어 강의를 VOD 방식으로 해외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이 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는 호남대 운영 교수(글로벌한국어교육학과)는 최근 일본 후쿠오카에 있는 구루메대학을 방문해 한국에 집중 교양 수업을 참관하고, 학생들을 만나 호남대와 KF 글로벌 e-스쿨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구루메대학 국제센터 요코타 류이치 소장(문학부 교수), 이희경 교수(외국어교육원), 토요사카 준이치 과장(학생과), 나가야마 야스코 부처장(국제센터), 후치가미 리사코 행정 직원(국제센터)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호남대 KF 글로벌

이스쿨 한국어교육 사업을 실제 진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와 조건, 수업 진행 과정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었다.

운영 교수는 “호남대 KF 글로벌 이스쿨 한국어교육 사업단은 앞으로도 세계 여러 대학과 소통 및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한국어 강좌가 필요한 곳에 호남대가 개발한 한국어 VOD 강의를 적극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호남대학교는 2021년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KF 글로벌 이스쿨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러시아, 태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중국, 아제르바이잔, 싱가포르 등 7개국 14개 대학에 한국어교육 VOD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마향로 903-6(오목리9)